



# 정교회주보

제2574호

2026년 4월 26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킬리스트라 동굴 교회: 리스트라 인근에 있으며, 박해를 피해 바위를 파내어 만든 초기 그리스도교 성지이다.

부활 후 제3주일  
(향유가진 여인 주일)  
성 바실레아스 주교순교자  
(제2조 • 조과 복음 4)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2조 찬양송 ..... " " 10
- 아리마태아 요셉 찬양송 · " " 75
- 향유가진 여인 찬양송 · " " 76
- 부활 시기송 ..... " " 39
- 사도경 : 사도행전 6,1~7 ..... 252
-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 98
- 성모송 .....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16회] 돌에 맞은 사도

**리**스트라를 가득 채웠던 환호는 순식간에 살의로 변했다. 안티오키아와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자, 사람들은 바울로를 돌로 쳤다. 그들은 사도가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성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내동댕이쳐진 사도를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났다.(사도행전 14,19-20)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던 강건한 믿음의 모습이였다.

바울로는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바르나바와 함께 이튿날 곧바로 데르베로 떠나 다시 복음을 선포하였다.

사도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성화로 나아가는 은총의 통로였다. 그의 여정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되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시련 속에서 물러서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의 기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배운다.

# 부활의 기쁨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부**활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어떤 상태에 대한 지적인 확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토마 사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시여!”(요한 20,28)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격적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감각과 개념, 생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밝아진 신자의 마음 안에서 구체적인 것, 즉 그리스도의 모습이 됩니다. 즉, 신앙인에게 부활은 어떤 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또한 인간을 신화(神化)에 이르게 하는 덕목들도 겸손, 사랑, 순결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무심으로써 체험하는 살아 있는 경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와의 관계는 인격적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랑 그 당사자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맛보고 경험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품에 안은 자녀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모성이라는 개념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 포르피리오스를 본받아 기쁨을 얻고 슬픔을 물리치고자 한다면, 고백성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백성사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기쁨의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부활의 기쁨을 채우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로가 가르친 것처럼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갈라디아 5,24)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동시에 온 피조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의 의미합니다.

# 초자연적인 것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 요한 크론스타트(1829-1909, 러시아 정교회 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인간 창조 전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결국 타락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타락 이후에 인간을 다시 바르게 일으키실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방법은 곧 하느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었으나, 성부와는 분리되지 않으신 채로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하느님이심을 그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몸과 인간 영혼의 능력을 지니시고, 죄로 인해 인간 안에 생겨난 부패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를 수 없었던 것, 곧 하느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자신을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어 불명예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장차 당신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를 위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부활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맨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곧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시대인 모두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다. 신인(神人)이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영원한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유죄 선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덕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으며, 이 구원 사역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능하심이 이루신 일이기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이신 분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된 새로운 상태에 합당한 삶과 행실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비록 온 세상이 저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고통스럽고 슬프며, 불안과 혼란 속에 빠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며, 마침내는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 사랑의 품 안에 머무를 때, 만물의 창조주이신 당신께서 저와 함께하시고, 모든 천사들과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모든 사람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이 당신 안에서 저와 함께합니다. 그때 저는 당신의 자녀가 되며, 그러므로 온 세상 또한 당신 안에서 제 것이 됩니다.



###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5월 1일(금)에 축일을 맞으시는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 알 림

### ■ 춘천 성당 세례성사

지난 주일(19일),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의 집전으로 조가온 미카엘과 진선정 부부의 딸 조이연 유아 미카엘라라는 세례명으로 세례 및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주님 축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 용미리 성당 세례성사, 성찬예배

지난 주일(19일),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첫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루키야, 김리야 유아 쌍둥이 자매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세례성사에 이어 성찬예배가 거행되었고, 예배 후에는 교회 묘지에 잠든 모든 고인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 ■ 서울 성당 신데즈모스 모임

지난 주일(19일),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성 대 주간과 부활절에 많은 수고를 해준 신데즈모스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간식을 나누며,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로부터 “우리는 항상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 ■ 세계 총대주교청 일본 엑사르히아의

#### 성 대 주간 및 부활절 예배

성 대 주간과 부활절 예배가 일본 도쿄, 나고야, 오키나와, 요코스카에서도 거행되었습니다. 폴 코롤룩 신부, 앤드류 컨스 신부, 바실 포힐레츠 신부가 다양한 국적의 신자들을 위해 예배를 집전하고 사목적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성당을 제공해 주신 도쿄 성공회 대주교(H.E. David Eisho Uehara)와 나고야 로마 가톨릭 주교(H.G. Michael Goro Matsuura)께 감사드립니다.

### ■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 모임

지난 17일(금), 대교구청 주교홀에서 ‘전쟁 5년, 우크라이나는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분쟁지역 전문가 김영미 PD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범죄 문제를 전하며, 한국의 앰블런스 지원과 시민단체의 고려인 지원에 대한 현지의 감사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쟁 취재 영상으로 앰네스티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 ■ 서울 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음향 시스템이 노후화와 여러 문제로 인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재정적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성니콜라스대성당)

